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에너지, 미국·멕시코】 美 무역대표부, 멕시코의 미국 에너지 기업 차별 문제 해결 위한 협의 요청

【천연가스, 중국·미국】 中 국영기업 페트로차이나, 美 최대 LNG기업 셰니어에너지와 25년 장기 계약

【천연가스, EU】 EU 회원국, 겨울철 가스 수요 15% 절감에 합의

【천연가스, 러시아】 러시아 대통령,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 경고

【원유, 중국】 中, 6월 원유 생산량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곡물, 글로벌】 우크라이나 곡물 흑해 수출 재개 협상안 서명, 글로벌 식량 위기 완화 예상

【경제, EU】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인상 빅스텝, 추가 인상도 예고

【반도체, 한국·중국】 중국, '칩4' 참여 검토 중인 한국에 연일 견제구

【원자재, 인니】 인니 정부의 원자재 → 제품화 수출 지원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 투자 급증

※ 다음주는 쉬어갑니다



GVC 뉴스 더하기

- ① 유럽의회, 보다 엄격한 산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규정 채택하여 공급망 관리 강화
- ② 대한민국 정부, 「2022 공급망 장관회의」 참석



GVC 기초상식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GVC 돌보기

국내 황산니켈 생산 1위 기업 캠코(주) 인터뷰



GVC 전문가

김바우(前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국의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및 대응 전략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소식



더 찾아보기

1973년과 비슷한 2022년 -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원의 힘', 김석환 한국외대 국제정치학 초빙교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에너지, 미국·멕시코】 美 무역대표부, 멕시코의 미국 에너지 기업 차별 문제 해결위한 협의 요청

- WSJ(월스트리트저널)은 7.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정부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고 보도. 미국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문제 삼으며, 국영 석유회사 PEMEX와 국영 전기회사 CFE에 특혜를 주고 있어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의 에너지·전기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멕시코는 사실무근이라 밝힘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올해 초 에너지 시장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개헌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취임 후 에너지 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늘려왔다고 평가됨
- 한편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해 협의의 요구가 제기될 경우 30일 안에 해당 국가가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관세 인상 등 보복책도 가능해짐

출처 : WSJ(22.7.20), 한경(22.7.21) 등 언론보도 종합

● 【천연가스, 중국·미국】 中 국영기업 페트로차이나, 美 최대 LNG기업 세니아에너지와 25년 장기 계약

- 7.20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영기업 페트로차이나가 미국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체 세니아 에너지사와 '26년부터 '50년까지 LNG 도입에 합의했다고 보도, '26년부터 인도를 시작하고 '28년부터 연 180만 톤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는 세니아에너지사가 맺은 최장기 공급 계약임
 - 세니아사의 공급계약은 '22년 들어 다섯 번째로서 석유 대기업 셰브론, 노르웨이의 스타토일 등과도 계약 체결, 라우 사태로 유럽 등 서방 각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며 미국산 LNG 수요가 크게 증가 중
 - 세니아사는 '22.6월 80억 달러(약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코퍼스 크리스티 시설 확장 계획을 승인, 추가 LNG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며, 對중국 수출 예정 물량의 약 50%는 동 시설이 건설되어야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짐
- 골드만삭스의 서맨사 닥트 천연가스 선임연구원은 7.2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추진에 따른 LNG 수요 감소로 중국 수입업자들은 이를 현물시장에서 유럽 등지에 재판매해왔으나, 수요가 회복되면 유럽向 LNG가 감소할 것이라 밝히며 유럽 에너지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출처 : 연합뉴스(22.7.21)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천연가스, EU】 EU 회원국, 겨울철 가스 수요 15% 절감에 합의

- EU는 에너지 공급 안보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올겨울 천연가스 수요를 15% 감소시키기로 합의
-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가스 수입 전면 중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과거 5년간 천연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가스 수요를 15% 절감할 것을 제안하였음
 -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가스 수요가 5% 감소하는 데 그쳐 15% 절감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천연가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EU 역내 가정, 병원, 학교, 중요 발전소 등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여 가스를 우선 공급하도록 제안하였음
- 해당 안에 대해,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최소 12개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하여 표결이 불투명하였으나 7.26일(현지시각 기준) 최종 승인됨
-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가스 비축률(65%)이 낮다며,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을 대비하여 오는 11월 1일까지 지하 가스 저장 최대용량의 80%를 비축분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출처 : 유럽 이사회(22.7.2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22.07.22)

● **【천연가스, 러시아】 러시아 대통령,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 경고**

- 7.19일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언함
 - 서구 국가들의 잘못으로 유럽向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며,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
- 또한 독일로 연결된 천연가스관 고장으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
 - 푸틴 대통령은 노르드스트림 I 가스관의 가스 펌프 5기 중 일부가 내부 손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고장난 터빈이 빠르게 교체되지 않을 시, 독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7.20일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터빈을 핑계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고 있다고 비난
 - 독일 언론은 수리된 터빈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며, 노르드스트림 I의 수리는 7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며 러시아측 설명에 대해 반박

출처 : Al Jazeera, Associated Press(22.07.22) 기반으로 작성된 CSF 자료 재인용

● **【원유, 중국】 中, 6월 원유 생산량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 6월 중국 공업용 원유생산량은 증가했으며, 5월 대비 원유 생산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중국 국가통계국)
 - 6월 원유 생산량은 1,71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일일 평균 생산량은 57만3천 톤이며, 원유 수입량은 3,582만 톤으로 전월 대비 11.9% 증가
 - 반면 6월 원유 가공량은 5,494만 톤으로 동기대비 9.7% 하락, 일일 평균 가공량은 183만 1천 톤 기록
 - 1-6월 누적 원유 생산량과 수입량은 1만 28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반면, 원유 수입량(2억5,252만 톤)과 가공량(3만3,222만 톤)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 6.0% 감소
- 또한 6월 천연가스 생산량도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173억㎥이며, 1-6월 누적 천연가스 생산량은 1,096억㎥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함, 일일 평균 생산량은 5.8억㎥을 기록(중국 국가통계국)
 - 6월 천연가스 수입량은 87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1-6월 누적 수입량은 5,35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22.07.25)

● **【곡물, 글로벌】 우크라이나 곡물 흑해 수출 재개 협상안 서명, 글로벌 식량 위기 완화 기대**

- 7.14일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4자 협상을 열고 흑해항로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과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원칙에 합의한 이후, 7.22일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최종 합의
 - 2.24일 러-우 전쟁 개시 이후, 무기 밀반입을 막기 위해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해상 수출로를 봉쇄,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 곡물 2천만 톤이 묶여 글로벌 식량난이 고조된 바 있다고 알려져 있음
- 흑해 수출 재개 합의안에는 ①러시아가 우려하는 무기 밀반입·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탄불에 합동 조정센터(JCC) 설치, ②오데사항 포함 우크라이나 항구 3곳을 개방하고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며 ③곡물 운송선의 안전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 합의안은 서명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같은 기간 연장 가능
- 한편 합의 이틀날인 7.23일 러시아의 항만 폭격으로 합의가 결렬될 위기에 한때 처하기도 했었으나, 7.25일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27일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첫 선적 착수를 기대한다며 향후 2주 내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니 등 지정된 항구 3곳 모두에서 곡물 수출 준비가 끝날 수 있다고 덧붙임

출처 : 연합뉴스(22.07.22/25), 뉴시스(22.07.23) 등 언론보도 종합

● **【경제, EU】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0.5%p 인상 빅스텝, 추가 인상도 예고**

- 7.21일 유럽중앙은행(ECB)이 '11.7월 이후 11년 만에 금리 인상, 기준금리는 0% → 0.5%로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이 결정되었고, 수신금리는 0%p, 한계대출금리는 0.75%로 모두 0.50%p 인상 감행
 - '22.6월 ECB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예고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인해 0.5%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예상보다 큰 인플레이션 위험에 지난 통화정책회의 때 예고했던 것보다 더 큰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러-우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 물가 고공행진, 공급망 문제 등은 '22년 하반기와 그 이후 경제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언급

출처 : 연합뉴스(22.7.22) 등 KOTRA 유럽지역본부 종합

● **【반도체, 한국·중국】 중국, '칩4' 참여 검토 중인 한국에 연일 견제구**

- 정재호 신임 주중대사가 부임한 7.19일,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의 한국 정부 참여 여부를 8월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디커플링을 시도하며 글로벌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한국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해 달라고 촉구
- '칩4' 한국 참여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연일 지속. 7.21일 중국 현지 언론 제일재경에 따르면 수취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하여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개방과 협력을 강화하고 파편화를 방지하는 것이 관련국과 세계 모두에 이득이 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 피력
-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7.21일자 사설에서 칩4 동맹을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성 시도'로 규정하고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가운데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홍콩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
- 지난 5월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했을 때만 해도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비판은 자제했던 중국이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결부된 현안에서는 한국을 향한 견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양상임

출처 : 연합뉴스(22.7.19), SCMP(22.7.23), 한경(22.7.24) 등 언론보도 종합

● **【원자재, 인니】 인니 정부의 원자재 → 제품화 수출 지원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 투자 급증**

- 7.24일 인니 산업부는 '22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가 230조 8천억 루피아(약 20조 2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약 38% 증가했다고 발표, 정부가 원자재를 채굴·수출하는 산업에서 벗어나 원자재를 제품으로 생산해 수출하도록 산업 전략을 수정한 후 제조업 투자가 급증한 상황
 -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투자 증가는 외국인 투자 증가분이 큰 비중을 차지, '22년 1·2분기 FDI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8%, 39.7%가 늘어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 특히 전체 제조업 투자의 약 72%가 외국인 투자임
- 이에 대해 인니 산업부는 정부의 일명 '다운스트림(하방 산업) 집중 전략' 덕분이라 설명, 원자재 수출 강국인 인니는 몇 년 전부터 외국 자본이 원자재를 채굴해 바로 수출하지 않고 제품 형태로 가공해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2년 들어서는 석탄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음
 - 이런 인니 정부의 정책 변화로 포스코는 제철소에 이어 '21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열연공장을 건설, LG에너지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각각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음

출처 : 연합뉴스(22.7.24) 등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유럽의회, 보다 엄격한 산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규정 채택하여 공급망 관리 강화

※ 유럽의회는 7.12일, EU집행위의 산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규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수정하여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채택한 바, 발효 시 시행 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자

- 유럽의회 환경위(ENVI), 보다 엄격한 산림벌채 관련제품 수입금지 규정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채택
 - (규제 대상 등 기준) 산림벌채 관련 대상 제품, 범위, 벌채 금지 기준 모두 EU집행위 제안보다 강화

〈 산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 규정 집행위-의회안 비교 〉

EU 집행위 초안		유럽의회 환경위 수정안	
대상 상품		추가 대상 상품	
소고기	냉장·냉동소고기, 소가죽 및 가죽제품	기타육류	돼지고기, 양, 염소, 가금류
코코아	코코아 원두,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파우더 및 초콜릿 등	옥수수	(관련 제품군 모두 추가)
커피	커피 관련 제품 일체	고무	(관련 제품군 모두 추가)
팜유	팜유, 팜너트, 바바수유, 고품제품	목탄	(관련 제품군 모두 추가)
콩	콩, 콩분말, 콩기름	종이 제품	(관련 제품군 모두 추가)
목재	통나무, 합판, 목재프레임, 목재가구 등 목재제품 전반	추후 적용 대상	발효 후 2년내 사탕수수, 에탄올, 광산채굴 원자재로 확대 검토 요청
벌채 금지 기준			
집행위	'20.12.31일 이후 신규 벌채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 금지	의회	'19.12.31일 이후 신규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 금지 (금지 적용 면적 확대)
벌채 금지 대상 범위			
집행위	산림 (대상 상품 원자재 경작지)	의회	발효 후 1년내 초원, 이탄지, 습지 등 기타 자연 생태계로 확대 검토 요청

- (시행 내용) 역내 관련 제품 취급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 부여
 - 집행위는 발효 후 6개월 내 국가별 벌채 위험수준을 3 등급으로 분류, 상이한 검사 수준을 부여하는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 도입 예정
 -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수집 및 보관 기간(5년)내 관할당국 요청 시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 사항 축소

주체	시행내용
기업	· 벌채 금지 기준 시기 이후 벌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정보 수집 (GPS 좌표, 위성사진 등) · 위성 모니터링, 현장 감사 등 상품의 원산지 파악을 위한 조치 실시
관할당국	· 규정상 명시된 범위의 검사(inspection) 실시 / · 벌금,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등의 페널티 설정 및 집행
집행위	· 산림벌채 위험성과 관련 정책 시행 등을 기준으로 국가를 3단계(높음, 표준, 낮음)로 구분 * 위험성 수준에 따라 상이한 실사 의무를 부여할 예정

- (제재) 연간 매출 4% 수준의 벌금, 관련 상품과 수익 몰수, 공공조달 제외 등
- (향후 일정) EU 본회의 투표(9.12일~14일)와 이사회 승인 거쳐 집행위와의 3자 협의 후 발효 예정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 역내 산림벌채 관련 제품 취급 기업의 실사 의무로, 대상 제품 가공 및 수출 우리기업은 역내 기업의 실사 요청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동 규정은 역내 업체에만 적용, 수출업체에 관할 당국에의 자료 제공 의무는 없으나, 역내 수입 업체가 수출업체에 해당 원자재가 벌채 금지 기준 이전에 생산되었다는 증명자료(원산지의 GPS 좌표, 위성사진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산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역시 EU의 ESG 관점에서의 공급망 관리 강화 일환인바, 더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일상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에 우리 정부 및 기업 역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상시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



GVC 뉴스 더하기 ② : 대한민국 정부, 「2022 공급망 장관회의」 참석

※ 정부는 7.20(수) 미국 국무장관·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서 18개국 장관들과 함께 화상으로 ① 단기적 공급망 교란 및 물류 대란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②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17개국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음

● 공급망 장관회의 개요

- (배경)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충격의 여파가 전 지구적임
→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여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 (참석) 대한민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DR콩고(총 18개국)
- (경과) 로마에서 개최된 '21.10월 G20 계기 공급망 정상회의의 후속회의로 참석국들은 단기적 공급망 교란 및 물류 대란 대응, 장기적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해 각국이 추진해온 정책 등을 공유

●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 요지(4가지 원칙)

-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투명성·다변화·안정성·지속가능성 등 원칙에 17개국 합의(인도네시아 제외)

① (투명성) 민간·시민사회·각급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공급망 투명성 촉진

- 잠재적이고 새로운 공급망 문제에 관한 정보 공유 강화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의 접근방식과 조기 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모색
- 이는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핵심안보이익 보호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다하는 가운데 추진

② (다변화) 물류 인프라 역량 강화와 함께 우선순위 분야의 원자재·중간재·완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원 다변화 및 글로벌 역량 증진

- 우선순위 분야 공급망에 대한 투자 촉진, 친환경적·책임있는 방식으로 조달된 원자재·중간재 개발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공동투자 장려
- 우선순위 공급망 내 중소기업 역할 확대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촉진, 광범위한 지역사회 투자 노력을 통한 형평성·포용성 원칙 실현
- 공급망 내 예측가능성·개방성·공정성·비차별성 촉진 및 규범에 기반한 경제·공급망 파트너십 조성·강화

③ (안전성) 핵심 인프라 관련 공급의존과 잠재적 취약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의 심화

- 상호 취약성 대응 및 공급망 안전성을 위한 부패문제 제거 협력 추진
-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산업계, 노동·시민사회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④ (지속가능성) 공급망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책임있는 기업활동, UNFCCC/파리협약 등 관련 다자 환경합의 상 목표 권장

-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기업관행 및 국제노동협약 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 인식
-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를 위한 협력(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인권존중 저해 불가)
-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환경오염 등 대응 및 유엔 SDG 목표 진전을 위해 ▲ 재활용 소재·부품 사용 확대, ▲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교역 권장



GVC 기초 상식 :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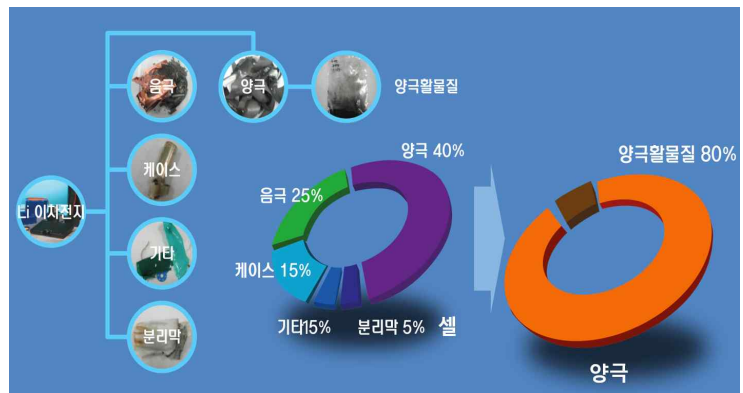
※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금속 회수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 전기차 배터리의 희소금속 회수 기술

- (중요성)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정책의 저탄소 에너지 확산기조에 따라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 리튬 이차전지의 핵심 희소금속 원료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폐배터리로부터의 희소금속 회수 기술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성분 〉

- 배터리 팩은 셀, 케이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냉각장치, 열관리 장치 등으로 구성됨
- 배터리 팩에서 셀은 중량기준 약 58%를 차지, 이 셀 중 양극(40%, 양극활물질은 약 32%), 음극(25%, 음극활물질은 약 20%), 케이스(15%), 분리막(5%) 등으로 구성됨



- Co, Ni, Mn, Li, Cu, Al이 포함된 배터리 양극재는 재활용 가능하나, BMS(플라스틱 부품)과 음극활물질(흑연)은 재활용 되지 않고 있어 자원화 연구가 필요함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일하이텍

- (전처리) 전처리 과정은 폐배터리를 BPL나 금속분말형태의 중간원료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크게 파쇄 전처리 공정과 고온용융 전처리 공정으로 나뉜다.
 - (1) 파쇄 전처리 공정 : **배터리 팩 분리 ▷ 방전 ▷ 해체 ▷ 파쇄 ▷ 선별 공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회수성분을 농축해서 BP(Black Powder or Battery Powder)를 얻는 공정**을 뜻한다. 이 공정을 통해 Co, Ni, Mn, Li, Cu, Al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비와 공정비용이 낮고 적은 용량의 배터리 처리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韓), BRUNP(中), GEM(中) 등이 이 공정을 사용한다.
 - (2) 고온용융 전처리 공정 : 물리적 전처리 공정 없이 **고온 용융로에서 금속 성분을 원상태로 환원하여 분말형태로 회수하는 공정**으로서 건식제련(pyrometallurgy)이라고도 말한다. 이 공정을 통해 Co, Ni, Cu를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슬래그로 배출된다. 투자비와 공정비용이 높고 대용량 배터리 처리 시 적합하다. 이 공정을 사용하는 기업은 UMICORE(벨기에)가 대표적이다.
- (후처리) 후처리 과정은 파쇄전처리 혹은 고온용융 전처리 공정을 통해 회수한 **분말물질을 습식제련(Hydrometallurgy)공정을 통해 고순도 배터리 원료를 얻는 공정**을 말한다. 침출 ▷ 여과(불순물 제거) 및 저장 ▷ 용매추출 ▷ 결정화와 전해추출의 과정을 거친다.

〈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공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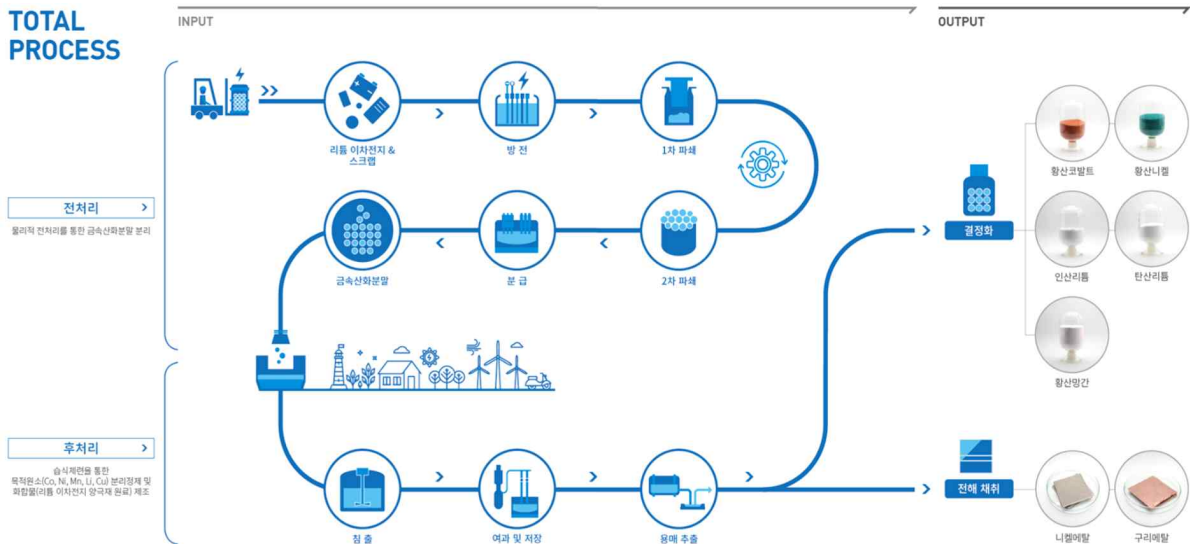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일하이텍

● 우리나라 배터리 희소금속 회수기술의 현재와 미래

-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은 또다른 배터리 제조국인 일본과 달리 재활용 상용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어 일찍이 희소금속 회수 기술이 발달하는 데에 유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파쇄 전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 회수 수준이 높은 성숙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벨기에의 UMICORE가 가진 건식 전처리 기술은 우리나라 일부 기업(영풍, 고려아연)에서 연구단계까지 성공한 상태임
- (미래) 전처리과정을 통해 중간원료를 녹인 결과물을 분리하여 화합물이나 메탈로 회수하지 않고, 녹인 용액에서 바로 전구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의 완전 순환형 공정이 확립되면, 제조 원가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 국내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기업공정, 성일하이텍(주) 〉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일하이텍

GVC 돋보기 : 국내 황산니켈 생산 1위 기업 켄코(주) 인터뷰

※ 이차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전구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전구체의 원료인 황산니켈 생산기업 켄코(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황산니켈 및 전구체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음

Q : 켄코(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A : 2017년에 설립된 국내 1위, 세계 5위권의 **황산니켈 전문 생산기업**임. 켄코社は 모기업인 고려아연의 축적된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고순도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물론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하여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또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음. 최근 니켈 가격의 급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니켈 시장의 수급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켄코社は **연간 생산능력을 10만 톤까지 확장**하고 추가적인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음.

〈 켄코(주) 온산 공장 전경 〉



자료 : 켄코(주)

Q : 황산니켈은 어디에 사용되는 물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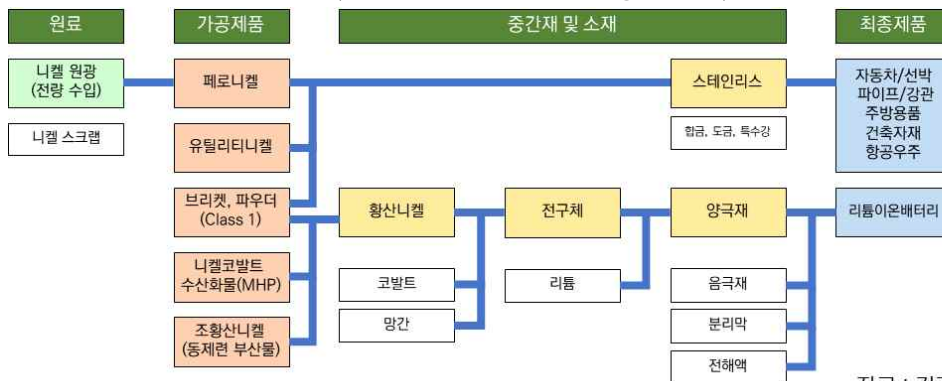
A :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소재를 결합하여 제조하며, **전구체란 양극재가 되기 이전 단계의 물질**임.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에 어떤 활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과 용도가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리튬 산화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다른 금속 물질을 더해 여러가지 조합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음. **활물질로는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 바로 '전구체'이고, 여기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됨.

〈 황산니켈의 형상 〉



자료 : 서울경제(2019.8.6)

〈 국내 니켈 제품의 가공 단계 〉



자료 : 김경훈(2022)

Q : 황산니켈은 어떻게 만드나요?

A : 전구체 생산에 투입되는 황산니켈 육수화물($\text{NiSO}_4 \cdot 6\text{H}_2\text{O}$, 니켈함량 22.3%)은 고순도 니켈에 황산을 첨가하여 제조함. 여기서 원료가 되는 니켈 제품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은 물론 생산 공정, 원재료 조달, 탄소배출량 등이 달라지는데, 켄코社は **글로벌 메이저 광산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순도**

높은 Class 1 니켈을 공급받고 있어 황산니켈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함. 또한 공정에 투입되는 부재료인 황산은 모기업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Q : 수출에 주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배터리 소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황산니켈 생산에 뛰어들었으나, 배터리 공급망 상 다음 단계인 전구체 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하여 국내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수출길을 열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음. 일본 바이어와 장기간에 걸쳐 신뢰 관계를 형성해온 결과 기존 대만 거래선을 조금씩 대체하면서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음. 올해부터는 RCEP 발효로 대일본 수출시 황산니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가 철폐되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산 소재 기피 현상도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Q :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의 취약점을 꼽는다면?

A : 국내 배터리 산업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소재 및 원료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배터리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임. 이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탓도 있지만, 그간 원가절감이 우선시 되다보니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육성할 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음.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전구체 분야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함. 동사는 최근 LG화학과 배터리 전구체 및 리사이클을 위한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주) 설립계약을 체결(22.5.31)하여 황산니켈뿐만 아니라 전구체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황산니켈 수출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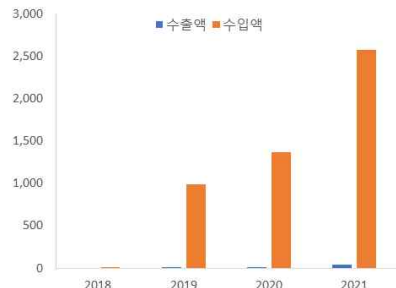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HS283324

〈 전구체 수출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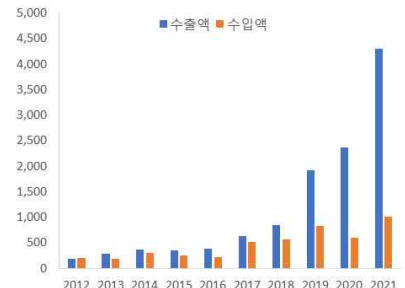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HS2825902090

〈 양극재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HS2841909000

Q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 광물, 소재 등 업스트림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기업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이나, 한편으로 켄코사는 대기업 계열사다보니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 세제 및 자금 지원, R&D 펀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또한 향후 배터리 시장의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비해 조달청이 직접 황산니켈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 추진시 자원 가격이 상승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투자했다가 가격 하락기에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할값에 파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또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함.

* 인터뷰 출처 : 김경훈(2022),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니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GVC 전문가 : 김바우(前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KOTRA 2022 글로벌 공급망 포럼 발표 중 '한국의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및 대응 전략'

※ 7월 중순 KOTRA 2022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발표된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과 대응 전략' 중 한국의 對중국 수입 동향을 토대로 본 공급망 의존도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 공급망 취약성, 세계적으로 수입의존도·무역 역조 토대로 정의

- 정확한 공급망 취약성은 기업 수준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나 **수입의존도와 무역 역조 등 무역통계를 사용한 정량적 접근만으로도 취약성 판단의 기초 정보 제공 가능**
- 영국 및 EU 주요 싱크탱크 역시 공통적으로 높은 수입의존도와 무역 역조를 공급망 취약성의 기초 판단지표로 사용, 동일 선상에서 한국의 對중국 수입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을 정의

〈 취약성 심각도에 따른 유형: 관심·취약 품목의 정의 〉

對중국 수입의존도	무역수지	
	수출 특화	수입 특화
50%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70%		관심 품목
70% 이상		취약 품목

(자료: 김바우 외(2021),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23호)

● 한국의 對중국 수입 취약성① :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 대비 관심이 필요한 수준

- HS 6단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수입 품목 5,300개 중 **관심품목은 1,088개로** 전체 수입 품목의 1/5 가량을 차지, **이 중 604개가 중간재**
 - (중간재 관심품목 특징) 604개 중 50% 이상 품목이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업종에 집중
- **취약 품목은 653개로** 전체의 1/10 이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업종에 분포**

〈 한국의 산업별 對중국 관심·취약 품목 수 (2020년) 〉

업종	관심 품목 수				취약 품목 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혼합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혼합
농림어업, 식품, 담배	68	46	7	2	55	31	4	2
광업, 석유화학, 정제, 전기	1	160	14	1	1	103	9	1
목재, 가구, 광물, 금속	41	159	29	60	25	94	16	39
섬유, 의류, 신발	96	125	8	25	48	84	4	12
운송 장비	6	50	10	8	3	26	5	4
ICT, 미디어, 컴퓨터	13	21	19	19	8	7	7	9
의약품, 문화, 스포츠	38	36	7	8	23	20	4	5
국방 등 기타	1	7	2	1	1	1	1	1
소 계	264	604	96	124	164	366	50	73
총 계	1,088				653			

(자료: 김바우 연구원 발표자료)

-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취약성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아 관심이 필요

-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과거 '07년 965개 → '20년 1,088개로 소폭 증가, 대상을 중간재로 한정할 경우 관심 품목 488개 → 604개로 증가, 취약성의 성격이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이동

〈 한국, 미국,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 비교 - 2020년 〉

업종	한국			미국			일본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對중국 수입의존도(%)	23.9	24.5	25.1	12.9	29.8	21.4	23.0	39.8	32.8		
품목수 (개)	관심 품목	604	264	1,088	185	241	575	475	385	1,048	
	취약 품목	366	164	653	86	127	281	268	226	598	
수입액 비중(%)	전체	25.1	46.6	34.0	16.8	67.6	56.3	34.5	71.9	62.9	
	관심 품목	중국 세계시장 점유율 30% 초과	12.1	34.8	22.6	15.3	66.9	55.8	18.1	54.1	47.5
		對세계 수입 특화	16.6	38.5	23.5	13.1	64.0	53.1	21.3	70.7	54.0
		취약 품목	17.5	32.2	22.8	10.3	47.8	43.6	13.8	38.5	37.7

(자료: 김바우 연구원 발표자료)

-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국가 간 비교우위구조에 의하여 한중 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의 대중국 취약성과 구별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취약성② : 첨단산업 관련 주요 업종과 연관**

- (2차 전지) 음극, 양극, 분리막, 반제품 및 완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40% 이상
 - (그 외 수입의존도高 국가) 분리막의 경우 일본 수입의존도 역시 40.2%로 높은 편
- (반도체) 개별소자 반도체부품, 메모리반도체, 금속소재 및 다이오드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40% 이상
 - (그 외 수입의존도高 국가) 대만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46.5%], 미국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45.3%], 말레이시아 [증폭기 42.2%], 일본 [세라믹소재40.8%]

〈 2차전지 주요 제품군의 수입의존도 현황 (2021년) 〉

수입 상대국	제품군	수입액 (백만불)	의존도 (%)	TSI (대세계)
중국	2차전지 완제품	3,100	92.3	0.26
	음극	110	85.3	-0.09
	반제품	115	78.2	0.70
	양극	1,690	72.5	0.33
	분리막	222	54.8	0.53
일본	분리막	163	40.2	0.53

〈 반도체 주요 제품군의 수입의존도 현황 (2021년) 〉

수입 상대국	제품군	수입액 (백만불)	의존도 (%)	TSI (대세계)
중국	개별소자 반도체부품	164	77.9	-0.08
	메모리반도체	16,754	77.6	0.59
	금속소재	75	62.2	0.55
	다이오드	357	59.6	-0.32
대만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10,546	46.5	0.15
미국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37	45.3	0.15
말련	증폭기	173	42.2	-0.32
일본	세라믹 소재	271	40.8	-0.46

(자료: KIET 김바우 연구원 발표자료)

- 위 국가별 수입의존도 40% 이상 품목을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상당수 품목의 對세계 TSI*가 양의 값을 기록해 한국이 수출에 특화된 상태로도 파악되는 바, ①한국이 실제 해당품목 생산·공급 혹은 ②단순 중계 가능성도 존재해, 실제 의존도 분석은 3국 이상을 포함시켜 조망할 필요가 있음**

※ (TSI[무역특화지수]란?) 교역에서 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된 상태,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된 상태를 의미
 - 한국의 특정품목에 대한 對세계 TSI가 ①양의 값인 경우, 해당품목의 對세계 수출에 특화된 상태 / ②음의 값인 경우, 해당품목의 對세계 수입에 특화된 상태

● **취약성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민간 합동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등장하면서 국제 분업 구조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하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등장은 효율성 위주로 형성된 통상환경의 위험성을 노정
 - 해외직접투자에 기인한 국제 분업 구조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으나, 이 역시 체계적 위험 하에 있음.
- 정부는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들의 비상 전략 수립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리쇼어링이나 비축이 필수적인 품목의 부처 간 협업 체계 및 국가 간 경제협력모델 구축도 필요
 - 주요 품목의 공급망 취약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중앙/지방 정부)
 -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Bottom-up 방식의 취약 품목 파악(개별기업)
 - 정부는 기업들이 취약성 유형(체계적/비체계적 위험 정도, 제3국 대체 가능성, 내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 컨트롤 타워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취약성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
 - 품목에 따라 조달선 다변화를 유도하거나, 원자재 채굴 → 1차 가공 → 부품 제조를 현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신남방 국가와 현지투자형 윈윈(Win-win) 협력모델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상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상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박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박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뭌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Twill by Maersk)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긴급 해상운송 채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국내 수출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대상 화물: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도착 항만: 전세계 150여개 국 300여개 항구 서비스 범위: 출고지부터 목적지까지 내륙·해상운송 및 통관 	7.22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드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포스코수출물류합적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바로가기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 러시아 모스크바</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지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 rowspan="2">불포함</td> <td rowspan="2">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d rowspan="2">포함</td> <td rowspan="2">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3	물류센터 보관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3	물류센터 보관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상담회 개최 소식****● 2022 인도 전기차 시장진출 상담회 <신청기한 : 8월 5일(금) 限>**

- 한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미래차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인도자동차부품협회(ACMA)와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인도 전기차 시장진출 상담회를 개최
 - 일시/장소 : 8월 29일(월)~9월 8일(목) 온라인 / 10월 12일(수)~13일(목) [잠정, 오프라인 (뉴델리내 호텔)]
 - 참가신청 : [인도 전기차 시장진출 상담회\(클릭\)](#)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① 사업신청서 작성 및 ② [구글폼\(클릭\)](#) 신청 및 (1번 2번 모두 신청을 완료해야만 정상 신청됨)
 - 참고사항 : 10월 오프라인 사절단 참가희망 국내기업은 뉴델리무역관 긴급지사화 가입 필수(약 90만원 상당)
 - 문의처 : KOTRA 뉴델리무역관 박혜영 대리 ☎ (+91)-11-4230-6300(312) / southasia@kotra.or.kr

● 한·산등성 스마트팜 교류회 <신청기한 : 8월 5일(금) 限>

-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스마트팜 분야 협업 확대를 위한 산등성 유망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
 - 일시/장소 : 9월 23일(금) 14:00~18:00 / 온라인 ※ 중국지사를 통해 현장참가 가능 시 현장상담(산등성 웨어팩시)주선 검토
 - 참가신청 : [한·산등성 스마트팜 교류회\(클릭\)](#) 신청하기 클릭 / ① 불임의 상담회 신청서 작성 후 ② 기업 중문 혹은 영문 카탈로그 두개 파일 갖춰 업로드 ※ 용량초과로 업로드 불가 시 yeoryung@kotra.or.kr로 송부 요망
 - 참고사항 : 9월 초 최종 선정기업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 02-3460-7468 / smartfarm@kotra.or.kr

● 한일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전시회 <신청기한 : 8월 10일(수) 限>

- 도요타 그룹 부품사 본사가 소재한 카리야 사에서 미래차, 그린 모빌리티 분야 국내기업 전시상담회 개최, 일본 벤더와 매칭 및 제조 혁신 스타트업 경우, 일본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발굴을 위한 피칭 지원
 - 일시/장소 : 11월 22일(화)~23일(수) / 카리야 산업진흥센터(일본 아이치현 소재)
 - 참가신청 : [한일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전시회\(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① 불임의 신청서 작성하고 ② 기업 일문 혹은 영문 카탈로그 두개 파일 갖춰 업로드
 - 참고사항 : 일본어 자료 보유 기업 우대, 전시 참가 무료, 운송·통관 및 출장비 등 제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곽지웅 사원 ☎ 02-3460-7647 / kju03@kotra.or.kr

● 한국무역협회·홍콩무역발전국(HKTDC) 한-홍콩 공급망 세미나

- (사업개요) 한국과 홍콩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보 제공
- (일시) 2022년 8월 9일(화), 15:30~16:50 (한국 시간)
- (개최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화상 세미나 (동시통역 제공) (오프라인 장소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15:30~15:40	축사	- 한-홍콩 BRT 홍콩 대표 Bob Chong 회장 한국 대표 ㈜역시콘 최명배 회장
15:40~16:10	한-홍콩 공급망에 대한 이해: 리스크 관리 및 혁신 방안	- Ms. Ivy Tse, Freight Amigo 공동 CEO 겸 설립자 - 김경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16:10~16:40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 Dr. Mark Yong, Blum Global 이태·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 최봉기 삼성 SDS Cello Square 사업팀장
16:40~16:50	폐회사	- 홍콩무역발전국 Christopher Lai 지부장 -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지역협력실장

- (상세내용) [“한-홍콩 공급망 세미나”\(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구글폼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선착순 100명 제한)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지역협력실」 ☎ 02-6000-5349 / soyoung.park@kita.or.kr



더 찾아보기 : 1973년과 비슷한 2022년

- 전쟁과 인플레 그리고 '자원의 힘', 김석환 한국외대 국제정치학 초빙교수

※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원의 힘'이 결합하면 글로벌 체제는 어김없이 요동쳤다. 셋 중 하나만 발생해도 그 규모에 따라 글로벌 파장이 심각한데 2022년 현재의 세계는 코로나 여진 속 세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현재의 복합위기 규모나 무게감은 1973년과 비슷하기에 두 연도를 비교해보자

● 요 인

분 야	1973년	2022년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 전쟁 발생(1960 ~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저지 등의 명분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22.2.24~)
인플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무기화에 따른 공급발 인플레이션 발생 최초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발 봉쇄조치 및 무역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경화 발생 → 인플레이션 발생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석유파동(1973.10)이 발생하여 석유 가격이 200% 오름 중동산 석유가 대체불가 자원이었기 때문에 석유 수출국들이 공급을 단절시키며 힘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요원자재 가격이 상승 니켈(21년 평균가격 대비 6월 둘째주가격, +107.3%), 우라늄(+50.2%), 유연탄(+188.6%), 아연(+28.3%) 러시아산 에너지제재로 인해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 인상

● 결 과

분 야	1973년	2022년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베트남전의 종전을 위해 북베트남과 파리평화협상을 합의하고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IPEF를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 다양화를 시도 (인도 및 다수의 ASEAN 국가를 포함하여 총 14개국 참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알래스카 석유를 본토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연결법을 통과시킴 서독과 소련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 중동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달러를 활용해 본격적인 자본축적과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등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수출 통제 미국은 러시아 국책은행 VTB를 포함한 90여개 금융기관의 거래 차단 독일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사업(발트해 해저로 러-독을 연결하는 1,234km길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중단 결정
산업구조	<p>베트남전(1960~1975)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의 주요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각국의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최초 주 3일 근무제 도입 미국 주요 자동차社들의 조업단축·감축 기간동안 일본社들은 미국 내 입지를 다짐 독일은 동방정책과 소련과의 에너지 협력으로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p>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봉쇄조치와 러-우 전쟁발 인플레이션, 에너지제재 등이 각국의 산업경쟁력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와 노동자 간 재택근무 힘겨루기 발생, IT와 같은 일부 업종 주3일 근무제 타협안을 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발생(리쇼어링 등) 러시아산 에너지제재로 미국 셰일가스社들의 글로벌 입지 강화

※ **(생각해보기)** '70년대 석유파동을 경험한 동력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비축, 석유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정책을 사업을 추진함. 2022년의 공급망 위기는 해당 품목이 '석유'에서 '산업·에너지·식량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됨. 과거 석유파동 때의 동력자원부의 정책 수단들이 2022년에 다시 소환되는 이유임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7. 27. 수)

[환율]

	'20.12.31	'21.12.31	'22.6.30	'22.7.22	'22.7.25	'22.7.26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98.40	1,313.00	1,313.70	1,307.60	-0.46%	+9.99%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98.50	1,312.50	1,312.40	1,307.90	-0.34%	+9.91%
₩/CNY	166.04	186.51	194.05	194.01	193.74	193.71	-0.02%	+3.86%
₩/Y100	1,051.19	1,032.48	953.16	952.55	963.05	956.55	-0.67%	-7.35%
Y/U\$	103.34	115.14	136.22	137.84	136.41	136.70	+0.21%	+18.73%
U\$/EUR	1.2279	1.1318	1.0463	1.10193	1.0192	1.0223	+0.30%	-9.67%
CNY/U\$	6.5305	6.3681	6.6952	6.7631	6.7530	6.7540	+0.01%	+6.06%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7.25 (전일)	'22.7.26	22.7.26			
					전일(7.25)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1.25	104.96	▲3.7 +3.7%	▲54.9 +109.7%	▲27.8 +36.1%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4.00	111.70	▲7.7 +7.4%	▲24.4 +28.0%	▼9.1 -7.5%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488.00	7,591.50	▲103.5 +1.4%	▼164.0 -2.1%	▼2,100.5 -21.7%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31.50	2,437.00	▲5.5 +0.2%	▲485.5 +24.9%	▼369.0 -13.2%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2,550.00	22,320.00	▼230.0 -1.0%	▲6,413.0 +40.3%	▲1,395.0 +6.7%

[반도체]

	'20	'21	'22.4	'22.5	'22.6	7.21	7.22	7.25	7월(~2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7	3.39	3.28	3.02	2.98	2.97	3.15
(%, YoY)	-21.9%	+8.0%	-25.1%	-23.9%	-28.6%	-33.6%	-34.1%	-34.1%	-30.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2	8.28	7.30	6.70	6.68	6.67	6.88
(%, YoY)	+7.0%	+32.8%	+34.5%	+30.2%	+9.4%	-0.7%	-0.4%	-0.1%	+2.2%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7.1	'22.7.8	'22.7.15	'22.7.22	22.7.22	
						전주(7.15)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203.27	4,143.87	4,074.70	3,996.77	-1.9%	-20.8%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6.30	'22.07.19	'22.7.20	'22.7.21	'22.7.22	22.7.22	
							전일(7.21)비	'21년말비
BDI	2,217	2,240	2,145	2,113	2,118	2,146	+1.3%	-3.2%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mGL3Obe>

협력기관

